

# 선교무용을 통한 체험적 현상학의 특성 연구

採恩 이영란\*

## 선교무용을 통한 체험적 현상의 특성 연구

採恩 이영란

본 연구에서는 선교무용의 본질성을 파헤치는데 있어서, 이에 따른 무용 미학에 있어서 체험적 접근(Experiential Approach)을 통해 무용 현상의 본질을 제시하여 규명 하려 하였다. 따라서 선교무용과 무용현상의 체험적 연구에 있어서 선교무용이라는 현상학적 존재의 본질은 성령(Holy Spirit Experience)의 경험이며 생생한 체험(Lived Experience)에 의해 통합한 의식신체를 통하여 무용이 발현되는 것이다. 선교무용의 현상은 신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무용으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선교무용의 체험적 특성은 영적 체험이며 마음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과 영광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선교적 결과의 특징이 있다. 무용현상의 본질은 시간(Time)과 공간(Space)이란 동적 현상이다. 선교무용의 현상학의 근본 요소는 믿음(Faith)이다. 이에 근본적 명제는 하나님께 영광과 복음의 전달이다. 선교무용의 특성구조는 믿음을 통한 영적변화, 선교적 사명, Holy Sprity 체험,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령(Holy Spirit)의 경험은 선교무용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이 원초적이란 말은 '그것으로 부터의 다른 경험 즉, 다른 무용으로부터 성령(Holy Spirit)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이것이 기본적이라는 말은 무용에 있어서 체험과 행위 수행의 많은 의미와 영역이 믿음 생활 기저에 있다는 뜻이다.

체험적 시각으로 성령(Holy Spirit)이라 함은 '무용 수행자의 주체의식이 육화(Embodied)된 신체가 경험하는 생생한 인간 본연의 창조적인 움직임의 발로' 라 할 수 있다. 이는 체험자인 본인 자신으로부터 이해의 출발점이 솟아 나와야 하는 것이다.

무용 현상에서의 성령(Holy Spirit) 추적에서 무용 수행의 매체인 신체는 물리적 사물로서가 아닌 의식의 구체화된 신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외부로부터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없음을 의미 한다. 반드시 체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무용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인적인 무용의 현상이며 여기에 선교무용 현상의 체험적 연구 방법론의 당위성과 무용 美學의 본질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제어 : 현상학, 선교무용, 성령, 체화, 생생한 체험, 특성, 체험적 접근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선교무용의 체험적 현상학의 특성 연구는 기독교인(Christian)인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교무용의 체험적 현상을 이론적으로 접근한 연구이다. “그리스도인이 예술에 종사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아무런 하자가 없다. 세상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지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이상렬, 2002:11)

이 논제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1) ‘선교무용 현상에 앞서 무용의 행위와 그것의 학문적 이론적 탐구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명제는 무엇인가’ 이다. 즉 ‘선교무용이란 무엇이며 춤추는 자와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무용의 현상이 이루어지는가. 2)현상학의 근본 요소는 무엇인가? 3)신체 움직임의 본질이 무엇인가\*’ 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일반무용과 선교무용의 특이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선교무용 및 무용이론 발전에 중차대하여 본 연구 목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움직임에 대한 무용 현상학적 혹은 경험적 분석이 제시되고 거기서부터 독창적이면서 자신만의 기술적인 이해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움직임은 경험적이거나 현상학적인 설명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움직임에 대한 분석은 객관적인 경험에 입각한 근본적인 출발이 될 것이다.”(오울자,1993)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저자 자신이 직접 안무하고 공연한 선교무용을 통하여 ‘믿음을 통한 영적으로 체험된 “생생한 경험”이 연구의 근본이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춤의 본질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에 대한 반성적이거나 사전 숙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춤을 동반하는 선 경험적이고, 전 반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오울자,1993).라고 말했듯이 본 연구의 의의는 자신의 믿음으로 체험된 경험이 춤의 실체와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음을 밝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 선교무용의 체험적 특성의 구조를 조명하고, 선교무용에 대한 체험적 접근을 위해 중요한 학문분야에서 무용의 위치와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가 경험한 선교무용의 원초적인 기능과 사상적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성령(Holy Spirit)의 본질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체험적 현상학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서 선교무용의 이러한 접근방법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각 개인의 무용수들이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무용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미래 기독교 문화예술로서 무용이론 발전 및 기독교 문화예술 발전을 비롯한 무용교육 이론 발전에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기독교인으로서 선교무용에서 경험한 체험적 현상을 바탕으로 선교 무용과 관련된 예술과 무용의 현상학, 문헌연구와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고찰할 것이다.

첫째, 기독교와 선교와 무용에 관한 문헌을 기초 자료로 한다.

둘째, 선교무용 현상학의 본질과 무용 현상의 접근법을 통하여 선교무용 공연 작품 분석, 국내·외 사역 및 선교적 특성을 살펴보고 고찰한다.

셋째, 예술과 현상학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선교무용의 체험된 특성을 분석한다.

넷째, 체험적 현상의 접근 방법이 무용과의 관계를 규명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용교육에서의 무용과 체험에 대한 차이점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 II. 선교무용과 체험적 현상

### 1. 선교무용의 정의와 목표

선교(Mission)라는 용어는 라틴어 Mitto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헬라이어 아포 스텔로와 펠포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 뜻은 파송”(Gerhard Kittle, 1986:27)을 의미한다. 선교라는 용어는 중세 프란시스 수도원으로부터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세상에서 사도적 생활과 복음을 증거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홍동경, 1987:393)”를 뜻한다.

선교란 복음이 침투해 본적이 없는 지역으로 교회의 경계를 건너 완전한 미지의 지역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선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동반자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주체인 것이다.

선교 무용이란 몸의 주관자를 하나님이라 인정하며, 몸을 매개체로 하여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선교 무용은 기독교인들의 영적 체험으로 그 자체가 예배이며, 찬양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일관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일반무용과의 차이점이다.

선교 무용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동의 표현이며 찬양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온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기도이다. 크리스천(Christian)들의 삶의 목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을 위하여 사는데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무용에 있어 크리스찬 무용가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무용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이러한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일반 무용가들의 무용의 특징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표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 자신의 삶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고 본인이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거듭난 사람은 내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영생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목표이다.

그 영광을 위한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롬8:9)이다. 내가 거듭난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의 입장이 되어 말하고 행동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의(義, 마 6:33),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된다.

신학자 보에티우스 (G, Voetius)는 선교(Mission)의 목적을 3가지로 보았다. “첫째 이방인의 회심이요, 둘째는 교회설립과 확장이며,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규현,(2002):11)이라 하였다. 또한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선교무용은 기독교 복음을 전도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무용이며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와 사명을 무용으로 세상에 예배 자를 파송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다. 광의의 의미로 볼 때 선교무용은 무용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무용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그리스도를 소재로 창작한 무용작품이다.

창조자로부터 받은 자신의 재능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한 선교의 목적으로 쓰임 받는 도구가 바로 무용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교무용의 목표는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데 있다.(벧전1:9)’ 라고 하였듯이 첫째는, 선교무용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를 회심하게 하여 영혼을 구원케 하며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義, 마 6:33)를 찾고 구하는데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 거듭난 믿음의 분량대로 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체험적 현상의 이해

선교무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춤이라는 형태, 즉 현상의 본질 요소인 신체 움직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춤의 본질적 탐구 작업의 연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춤에 관한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그러므로 춤의 “본질성을 추구하기 위한 작업은 그러한 시도가 갖고 있는 속성상 본질의 대상으로 무엇(What) 과 방법론으로서의 어떻게 (How)라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동시에 관련되는 것이다.”(김말복, 1996:42)

이와 같이 춤의 본질성과 연구방법 문제는 동시에 제공하는 하나의 현상을 선교무용에서 그 맥락을 찾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인간의식과 신체가 총체적으로 구현된 현상” 이라 할 수 있으며 소위 선교무용의 심성이라 할 수 있는 성령(Holy Spirit)이 바로 그것이다. 성경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Christian)아니다”(한창완,2009:58) (롬 8:9)라고 했듯이 성령(Holy Spirit)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최고의 영적 선물이다.

“루아하(하나님의 성령)”는 신적이요, 아훼께서 사용하는 권세요 또한 루아하의 움직임은 하나님 자

기의 임의성을 암시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변혁하는 힘 또는 권세를 의미한다.”(김인곤,1998) 때로는 “루아하”는 생명력(Pathos)이 있는“마음(Heart)”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누가복음4장 18-19) 그리스도인은 치유와 온전함에 대해 열정을 지닌 예수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애쓴다. 성령(Holy Spirit)은 성경을 통한 묵상, 기도, 행함 등 그리스도인의 생활표현 방식을 완성하는 종교적, 예술적 원천이다.

동시에 “성령”(Holy Spirit)을 통해 사회 공동체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보다 나은 삶으로 발전시키는 믿음생활 기저에서 솟아오르는 “생명 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선교무용의 방법은 성경에서 나와야 하며 전파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 따라서 선교무용은 하나님 말씀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 저자 자신의 개인작품 발표회 작품 “사랑굿 1”(1987)은 단순히 자신을 표현(Self-Performance)하는 것이었다. 내가 중심인 나의 사회생활을 통하여 경험한 사상과 철학을 나의 신체를 빌어 나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사랑의 부재현상을 통하여 겪는 모든 현상들은 오직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충만한 사회가 영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표현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기독교인이 된 후 믿음으로 거듭난 이후에 발표된 “사랑굿 2”(1994) 창작품은 성경 속의 “호세아예언서”를 작품화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로 성령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배제한 오로지 주인공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었다.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춤이다. 춤 자체가 방탕과 타락과 고난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선교무용과 일반적인 무용의 다른 점은 육적이거나 매혹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교무용의 현상은 神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구속사와 사랑을 무용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선교무용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즉 속에서 피어나는 그분을 향한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본인 자신이 비 기독교인일 때 발표한“사랑굿1”(1987)과 기독교인이었을 때 발표한 성경 호세아 예언서를 안무한 창작무용 “사랑굿2”(1994)가 일반무용과의 구별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 III. 선교무용을 통한 체험적 현상의 분석

#### 1. 수행자의 체험적 현상

“20세기 이후 현대 철학의 조류에 비추어 볼 때 예술 미학적 관점의 주된 초점이 인간 개개인의 주

관적 체험에 맞추어지기”(김말복,1996:206) 시작했다. “예술은 현실의 강렬한 체험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할 뿐 아니라 또 구성 되어야 한다”(김성기,1984) 라고 했듯이 예술 활동에 있어서 수행자의 내재적 체험을 중시하고 있다.

존듀이(John Dewey)의 “경험으로부터의 예술(Art and Experience)”(Dewey. J. 1986)과 메를로퐁티(Merleau Ponty)의 “주체로서의 신체(Body as subject )”의 개념들은 무용과 관련지어 볼 때 체험적 차원에서의 가치 부여라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기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을 위하여 사는데 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를 찾고 영광만을 구하는 데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기독교 예술인들의 체험적 현상에 있어서 무용의 본질은 성령(Holy Spirit)이다. 성령(Holy Spirit)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최고의 영적 선물이라고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기독교 예술인들에게는 가장 개인적인(Private) 체험적(Experiential) 춤의 본질(Essence)인 것이다.

결국 춤은 “인간의식 신체가 총체적으로 구현된 인간 제일의 표현의 수단이며 가장 직접적인 인간 경험의 발로라 할 수 있다.”(오율자,1993) 이는 곧 춤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생활 세계의 발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체화(Embodied)된 신체는 곧 인간 의식의 발현이며 생활 세계의 표출인 것이다.

그러므로 춤은 인간 신체의 원초적 상황이며 흐름이다. 이러한 춤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인들의 삶에의 영적 체험은 그것의 이해와 규명작업은 분명히 체험적(Experiential) 이어야 할 것이다. “믿음은 행함에 따르게 되며 반드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 행함은 곧 순종으로 나타나며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의 판단은 행함인 것이다. 그러므로 행함은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신학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믿음이라고 한다.”(한 창환,2009:50)

결론적으로 선교무용에 있어서 수행자들의 체험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1). 성경을 통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한 영적 변화.
- 2). 선교적 사명(A missionary calling)
- 3). 성령(Holy Spirit)체험
- 4). 시·공의 초월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겠다.

## 2 현상학으로 본 체험적 미학의 현상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의식과 신체가 총체적으로 구현된 체험적 현상을 선교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교에 있어서 文化는 너무나도 중요한 意味를 갖고 있다는 신학자들과 선교사들 사이에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조승미,1996)

오늘날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의 무용 예술계에서 예술적인 기독교 무용은 새로운 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선교무용의 심성은 “성령(Holy Spirit)이라 할 때 어떤 다른 체험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것”(이정구,1989)이다. “성령은 선교의 수행자요 관리자이기에 성령이 없는 선교”(J. H. keane,1976:370)는 있을 수 없다. 라고 했듯이 동시에 선교와 분리된 성령을 이해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성령이 선교의 결정적인 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강력한 선교무용의 본질로서의 성령(Holy Spirit) 체험은 영적 존재의 형태 혹은 수행자 자신의 몸에 자발적으로 발현되는 수행자 육신의 체득(Sedimentation)되는 의식세계의 발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것 자체가 영적 체험인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선교 무용의 본질 차원에서 성령(Holy Spirit)의 춤 美學이라 할 수 있다. 성령의 경험은 선교무용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기본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이다. 성령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그것은 확연하게 사적경험(Private Experience)이라 할 수 있다. 성령(Holy Spirit)의 본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체험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는 성령(Holy Spirit)에 대한 삶의 방법이 직접적인 체험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본질은 선교무용의 본질과 같은 총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3. 무용현상학의 본질과 선교무용과의 관계

“현상학은 모든 문제들의 본질들 즉 지각의 본질이거나 의식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구하는 일로 귀결 된다”(김말복,1996: 207)고 하였듯이 무용은 현상의 특정한 유형은 움직이는 동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상학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들 두개는 시간(Time)과 공간(Space)이다. 또한 무용이라는 동적인 현상내에 어떻게 시간성과 공간성이 내포되어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무용의 동적인 현상과 그 현상의 생경험(Lived Experience)을 기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새로운 용어상의 개념적 체계가 필연적으로 생성되고 그 표현을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 하는 것이다.

이는 선교무용을 통한 무용현상의 이론적 접근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주신 하나님 선물은 성령이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 무용은 형상화되고 의식도 출현하는 동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형성되고 공연되는 예술로서 살아있고 생생한 人間의 경험이다. 이는 춤 현상의 본질적 기초이며 춤 미학의 기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용현상의 본질성과 선교무용과의 관계의 긴밀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무용의 현상을 이루는 체화된 의식신체의 구현은 창작되어지는 무용 자체적 특성과 본질이 생생한 체험(Lived Experience)에 의해 통합된 의식신체를 통해 춤이 발현되어 춤의 의미 뿐 만아니라 본질에 도달하게 된다. 라고 현상학에서 말하고 있다. 기독교인(Christian)들에게 독특한 경험은 성령(Holy Spirit)이다. 성령(Holy Spirit)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최고의 영적 선물이다. 비 기독교인이 경험 할 수 없는 생생한 체험(Lived Experience)인 것이다. 따라서 선교무용은 무용현상의 본질에 도달하는 생생한 체험 즉 성령 경험을 통해 무용현상학의 본질과의 관계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의 논의 점은 선교무용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 움직임과 무용과의 관계를 규명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교육에서의 무용과 움직임에 대한 교육 간의 차이점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기초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접근방법의 가장 큰 교육적 가치는 제한적이지 않고 차후에 있을 선교무용 현상학

연구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선교무용의 차원을 넘어 많은 무용예술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발전된 무용이론 및 무용 교육에 가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선교무용을 통한 무용현상학의 체험적 특성 연구에 있어서 선교무용이라는 현상학적 존재의 본질은 성령(Holy Spirit Experience)의 체험이다. 성령체험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생한 체험(lived experience)에 의해 신체를 통하여 춤이 발현 되는 것이다. 선교무용의 현상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무용으로 주님의 구속사와 사랑과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선교무용의 체험적 특성은 영적 체험이며 행함을 실천함으로 마음속 깊은 기저에서 밖으로 나오는, 즉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과 영광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열매를 얻는 선교적 결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용현상학의 본질은 시간(Time)과 공간(Space)속에서 움직이는 동적현상이다. 선교무용에서 현상학의 근본적 요소는 “믿음(faith)”이다. 이에 근본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명제는 주님께 영광과 복음의 전파이다. 몸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며 찬양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교무용의 특성구조는 믿음을 통한 영적변화, 선교적 사명, Holy Spirit 체험, 시공을 초월한 세계관 이라 할 수 있다.

선교무용의 본질적 현상학의 특성은 성령으로 근본은 생명력(Holy Spirit)있는 마음(heart)인 것이다. 이것이 선교무용에 있어서 미학적 가치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령(Holy Spirit) 경험은 선교무용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비한 뜻과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변혁하는 힘과 권세를 가진 것으로서 기독교 예술인들에게는 가장 개인적이고(Private) 체험적인(Experiential)춤의 본질(Essence)인 것이다. 그것이 원초적이란 말은 그것으로부터의 다른 경험 즉, 다른 춤으로부터 성령(Holy Spirit)을 설명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이라는 말은 춤에 있어서 체험과 행위 수행의 많은 의미와 영역이 믿음 생활 기저에 있다는 뜻이다. 체험적 시각으로 성령(Holy Spirit)이라 함은 춤수행인의 주체의식이 체화(Embodied)된 신체가 경험하는 생생한 인간 본연의 창조적인 움직임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인으로서 영적 체험자인 본인 자신으로부터 이해의 출발점이 솟아 나와야 하는 것이다.

춤 현상에서의 성령(Holy Spirit) 추적에서 춤 수행의 매체인 신체는 물리적 사물로서가 아닌 의식의 구체화된 신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외부로부터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없음을 의미 한다. 필히 체험적(Experiential)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선교무용에서 성령(Holy Spirit)의 경험은 선교무용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인적인 춤의 현상으로서 선교 무용 현상학의



체험적 연구 방법론의 당위성과 춤 美學의 본질성의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선교무용을 통한 체험적 현상학 특성 연구법에 의한 제언은 더 많은 무용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상학적 접근 방법의 움직임과 무용과의 관계를 규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은 교육에서의 무용과 체험적 현상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무용이론 발전 및 각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다양하고 풍부한 무용문화 예술 발전과 기독교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말복(1996). 『무용의 현상학』. 서울: 예전사.
- 김병혁(1982).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서울: 성광문화사.
- 김성기(1984).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돌베개.
- 김인곤(1998). “루아하의 의미와 그 활동상.” 『세계 선교 52권』
- 박근원(1982). 『오늘의 선교』. 서울: 진망사. P. 147.
- 손동현(2001). “예술과 현상학. 철학과 현실사”. 『철학과 현상학 연구. 1』
- 신경림.안규남(1994) 『체험연구(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서울: 동녘 출판사.
- 오병남(1983)(메를로퐁티 지음). 『현상학과 예술』. 서울:서광사.
- 오을자(1993). “무용 현상연구의 체험적 접근방법 가능성”. 한국체육학회 학술논문집. 31.
- 이규현(2002).“ORLAANDO COSTAS의 선교신학 사상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논문.
- 이상렬(2002). 『예술과 신학』. 도서출판 한글. P.11.
- 이영란(1997). 『춤과 삶의 현상에 관한 이론적 접근』. 서울: 성지출판사.
- 이정구(1989). 『직장선교(생업 현장에서 전도하고 생육하라)』.성광문화사. P.69.
- 전영길(1995). 『현상학 연구』. 한국문학사.
- 조승미(1996).“기독교선교와무용에관한연구”. 한국체육학회지.35(1). PP.77-85.
- 한제선(2008).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무용의 유형과 현황 연구”. 용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창완(2009). 『기독교의 진수』. 쿤란출판사. p.58.
- 홍동겸(1987). 『부르심에 합당한 선교』. 도서출판. 예루살렘.p.398.
- 이규현(2002). “ORLAANDO COSTAS의 선교신학 사상 연구”.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논문. p. 14 .
- Dewey. J(1986). *Art As Experience*. New York. Caprican Books .
- Gerhard K (1986).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of Wisconsin Press*. p. 27.
- keane J. H.(1976).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op cit . P.370.
- Orlando E. Costs. *Christ Outside the Gate*. 김승환 역(1987). 『성문밖에 그리스도』. 한국사학 연구소. P. 319.
- Orland E. Costs *Integrity of Mission*. 진희근 역(1982). 『통합적 선교신학』. 서울:예장 총회 교육부.P.21.
-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오만규·홍치역 역(1982). 『기독교선교사』 (하) 성광문화사. p. 61.

Sheet. M(1986). *The phenomenology of Dance*. Milwaukee. The Univ. of Wisconsin press. p.27.

Sheet. M(1986). *The phenomenology of Dance*. Milwaukee. The Univ. of Wisconsin press. p.207.

네이버지식백과(2006). 현상학(Phenomenology).(문학비평용어사전.국학자료원).

### Abstract

#### A Study on Characteristic of Experiential Phenomenon through Mission Dance

Lee,Young-ran. Sookmyung women's Univ

That Holy Spirit Experience is basic indicates that many meanings and areas of experiences and behavior performance in dance underlie living in faith. The Holy Spirit from the experiential perspective can be explained as an expression of human's vivid inherent creative movement experienced by the body, in which a dance performer's sense of identity is embodied. In short, Such a mechanism is feasible only when the starting point of the understanding of the Holy Spirit emerges from an experiencer him/herself.

The Phenomenology of mission dance consists of giving thanks, praise, and from whom he or she received the talent with dancing to deliver God's love and good news of salvation the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 of mission dance is a spiritual experience which expresses love and joy of the dance to God. The essence of dance is bodily movement which takes time and space. The essential basis of mission dance is faith and its basic premise is going to God and spread of the good news. The characteristic purposes of mission dance are spiritual transformation through faith, realization of the calling to mission, experience of the holy sprit, and world view which transcends time and space.

The body, which is a medium of dance performance in pursuit of the Holy Spirit in the dance phenomenon, should be regarded as the actualized body of consciousness other than a physical thing. This means it's impossible to objectively consider from outside. Namely, it should be definitely experiential. Accordingly,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 in mission dance is the most fundamental personal dance phenomenon to those who perform mission dance, where exist appropriateness of experiential research methodology of mission dance, and the nature of dance aesthetics.

**key words:** Phenomenology, Mission Dance, the Holy Spirit, Theory of Dance, Vivid Experience, Characteristic, Experiential Approach, Embodiment,